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5	2	3	3	5	4	2	5	3
6	2	7	3	8	3	9	5	10	3
11	4	12	3	13	4	14	5	15	4
16	5	17	3	18	4	19	5	20	2
21	2	22	4	23	4	24	4	25	1
26	1	27	2	28	2	29	4	30	5
31	2	32	4	33	4	34	3	35	2
36	1	37	3	38	1	39	3	40	4
41	4	42	5	43	1	44	2	45	4

[화법]

1. [출제의도] 발표 말하기 전략

1문단에서 ‘여러분은 휴일이면 주로 어디로 나들이를 가시나요?’라고 질문한 후에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발표의 자료 활용 방식

4문단에서 동영상 활용하고 있으나 골목길 해설사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골목길 옆 벽에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모습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어’ 역사 기념관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골목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현장의 즐거운 분위기를 동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골목길 골자락 풍경을 보며 추억을 떠올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골목길 건물의 외관이 옛날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

청자 2는 비언어적 표현이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효과에 대해 이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렸으나, 청자 3은 그렇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청자 1은 골목길을 찾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신문 기사를 본 경험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화면을 가리키며’나 ‘손을 내밀며’에서 나타난 손동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청자 3은 좁은 골목길을 정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발표를 들은 후 골목길을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청자 1은 골목길을 탐방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내용이 빠졌음을 아쉬워하고, 청자 2는 골목길 프로그램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 [출제의도] 토의 사회자의 역할 파악하기

[A]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생 1’은 ‘학생 2’가 말한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는 내용과 ‘학생 3’이 말한 상대방을 존중하며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학생 3’의 네 번째 발화에서 ‘학생 3’은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한 적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에 질문이 제시되어 있으나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학생 3’의 세 번째 발화에서 ‘학생 2’가 제안한 토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학생 3’은 ‘학생 2’의 입장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작문]

6. [출제의도] 작문 내용 구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나)의 2문단에서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깨달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1문단에서 시에 대한 감상을 나누면서 ‘심’의 의미를 고독에서 소통의 의미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배려하며 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듣는 태도가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소통의 과정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소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3문단에서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시의 구절을 활용하여 소통의 대상을 넓혀야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내용 구체화 적절성 파악하기

㉠에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충고하거나 설명하기 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자신의 기준보다 말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공감적 경청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소통의 첫 단계에서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존재임을 인정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소통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나 목적에 맞는 소통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글쓰기의 전략 파악하기

학교 앞에 새로 생긴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에서 과속 차량으로 인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기

(나)에서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의 효과를 언급하였으나 교통량이 감소된다는 주장은 ‘학생의 초고’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1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따라서 교차로가 신설된 학교 주변 환경의 변화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② (나)는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 체계로 인해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원인으로 언급하기에 적절하다. ③ (다)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보행 시간이 줄어들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는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④ (가)-2에서 왕복 4차로에서의 속도위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속도위반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속하던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턱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A]와 비교해 보면, 건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대각선 횡단보도와 ~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지금 당장은 ~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언급된 ‘안전띠 매기 캠페인’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에 어울리지 않아 삭제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④ [A]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A]에서 제시된 기대효과인 ‘제가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 수월해질 것입니다.’는 그대로 두었으므로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이해

㉠에서 ‘ㄷ’이 ‘ㄷ’으로 바뀐 후 다시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음운 교체가 2회 일어났고, ㉡에서 ‘ㄷ’이 ‘ㄷ’으로 바뀐 후 다시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음운의 교체가 2회 일어났다. 따라서 음운 교체 횟수가 같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에서는 ‘ㄴ’이 첨가되었으나 ㉠에서는 음운 첨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의 ‘ㄱ’이 ‘ㄱ’으로 발음되는 것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지만, ㉡에서는 음운 탈락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에서는 ‘ㄷ’이 ‘이’ 앞에서 ‘ㅌ’으로 교체되어 나타나고, ㉡에서는 ‘ㄷ’이 ‘ㅎ’과 만나 ‘ㄷ’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나타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ㄱ’이 ‘ㄱ’으로 발음될 때는 탈락이 1회 일어났고, ㉡에서 ‘ㄷ’이 ‘ㅌ’으로 발음될 때에는 교체가 1회 일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복합어의 이해

‘겹겹이’는 어근 ‘겹’과 ‘겹’이 결합한 데 접미사 ‘-이’가 결합하였으며, 명사에서 부사로 품사가 바뀌었으므로 적절하다.

① ‘군것질’은 어근 ‘것’에 접두사 ‘군-’이 결합된 파생어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것이며 품사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바느질’은 어근 ‘바늘’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것이며 품사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다듬이’는 ‘다듬다’라는 동사에서 어근에 해당하는 ‘다듬-’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뀐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헛웃음’은 ‘웃다’라는 동사의 어근에 해당하는 ‘웃-’에 접미사 ‘-음’이 결합되어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뀐 후 접두사 ‘헛-’이 결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문맥상 ‘수밖에’의 ‘밖에’는 <보기 1>의 2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조사이기 때문에 체언과 붙여 써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출입문을 넘어선 복도 쪽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문맥상 ‘머칠 밖에 남지 않았다’는 ‘머칠 이외에는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므로 조사인 ‘밖에’는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뜻밖에도’ 아쉬움이 더 크다’는 것은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아쉬움이 더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뜻밖에도’

는 유의어인 '의외로'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기대 밖의 선물'에 쓰인 '밖'은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14~15] <출전> 고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

14. [출제의도]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이해하기

ㄴ의 '소리도 없이'라는 안긴문장은 '그가 사라졌음'이라는 명사절에 안겨 있다. 그러나 ㄷ의 경우 '운동장을 달리는'이라는 안긴문장과 '발길을 조심하'라는 안긴문장이 있으나 각각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겨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ㄱ은 '아이가 먹기'라는 명사절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ㄴ은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이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발길을 조심하라'고에서 '고'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적절하다.
- ④ ㄱ의 '잘 다져진'과 ㄷ의 '운동장을 달리는'은 모두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

(가)의 '므술허 멀면'은 현대어 풀이를 바탕으로 중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의 '乞食 허다'가 현대어 풀이의 '걸식하기'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디'에 기대어 명사절이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나)의 '이 東山은 남기 道홀씨'는 '이 동산은 나무가 좋으므로'라는 현대어 풀이로 볼 때 '남기 道홀씨'가 '이 東山은'의 서술어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다)의 '꽃 道코'는 '꽃이 좋고'라는 현대어 풀이로 볼 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똥다'의 어간 '똥-'에 '-고'가 붙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나)의 '도홀씨'의 현대어 풀이 '좋으므로'와 (다)의 '똥씨'의 현대어 풀이 '흔들리므로'를 통해 현대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을 중속적으로 연결해주는 '-르씨'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인문]

[16~20] <출전> 정동호, 「니체」

1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자연 개념을 중심으로 흠스와 루소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 두 철학자의 이론이 지닌 한계에 대해 비판한 니체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3문단의 '자연 속에서 감성을 따르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겼다'를 보면, 루소는 자연에서의 삶을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2문단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를 보면 흠스가 마을 사람들의 상황을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 ② 2문단의 '그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를 보면 흠스는 A 씨가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것을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기는 것은 적절하다.
- ④ 3문단의 '루소는 인간 욕망의 결과물인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문명에 의해 형성된 도시의 퇴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혐오하였다.'를 보면 루소는 B 씨의 친구가 B 씨에게 한 위선적인 행동에서 문명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삶의 일면을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 ⑤ 4문단의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 활력이 억압당하고 축소되었다고 니체는

생각하였다.'를 보면 니체가 C 씨가 도덕을 바탕으로 아들의 본능을 억압한 것을 아들이 넘치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2문단과 3문단을 보면, 인간의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흠스와 루소는 상반되는 주장을 제시하는데, 이 주장의 바탕에는 흠스가 자연을 악한 것으로, 루소가 자연을 선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깔려 있다. 그리고 4문단을 보면, 자연에 대한 두 철학자의 관점이 니체가 보기에는 도덕적 규정일 뿐이고, 니체는 그들이 제시하지 못한, 도덕적 규정 이전의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하고자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① 3문단을 보면,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문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자연 개념을 구축한 것은 루소의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2문단을 보면, 흠스는 자연 상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상적 인간상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2문단을 보면, 흠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2문단을 보면, 흠스는 자연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인간이 수용했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의도] 핵심 개념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하기

5문단의 '인간 삶의 고양을 위해 ~ 육체에 주목하였다.'를 보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인간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4문단의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본다.'를 보면 적절하다.
- ② 4문단의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하게 만들었다고 본다'를 보면 적절하다.
- ③ 4문단의 '그 결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고'를 보면 적절하다.
- ④ 4문단의 '니체가 보기에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와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대상화하면서'를 보면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다른 이론과 비교하기

5문단의 '동시에 '몸'을 '큰 이성'이라고 규정하고 ~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와 <보기>의 '메를르 폰티는 몸에 대한 ~ '몸'을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다'를 보면 니체와 메를르 폰티 모두 '몸'을 인간의 이성적 활동과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사회]

[21~25] <출전> 박환재, 「정석 재정학」

21.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A]는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한 개인의 소비자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아, 두 소비자는 가격 P에서 동일한 공급량 Q를 모두가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다. 반면 <보기>는 사유재에 대한 설명으로 한 개인의 소비자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제한하기 때문에, 두 소비자는 가격 P에서 서로 다른 양인 Q1과 Q2를 소비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보기>의 수요자들은 가격 P에서 Q1과 Q2라는 양을 소비할 수 있지만, [A]의 수요자들은 가격 P에서 Q라는 공급량을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2문단에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3문단에서 공공재의 경우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쳐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 만들어진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사유재의 경우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쳐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 만들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A]는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고, <보기>는 사유재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A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으로 표출한다면, A, B, C 전체의 지불 용의액이 400만 원으로 공급 비용 600만 원에 못 미치게 되어, 교량은 건설되지 못한다. 따라서 A는 교량이 공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 300만 원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적절하다.

- ① A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4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 합이 여전히 100만 원이어서 A의 추가 세금은 변화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B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하는 경우와 속이지 않는 경우 모두 자신의 순이익은 A와 C의 순이익의 합인 200만 원 보다 적어 추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C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0원이라고 표출하는 경우와 속이지 않는 경우 모두 자신의 순이익은 A와 B의 순이익의 합인 300만 원보다 적어 추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B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하더라도 A, B, C 전체의 지불 용의액이 700만 원으로 교량은 건설되므로 B가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할 수 없다. 또한 B가 본래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은 0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갑'이 없었다면 공공 도서관의 순이익 합이 20만 원이 되어, 공공 병원의 순이익 합인 40만 원보다 작아, 공공 병원이 건설된다. 또한 '병'이 없었다면 공공 도서관의 순이익 합이 30만 원이 되어 공공 병원의 순이익 합인 40만 원보다 작아, 공공 병원이 건설된다. 따라서 '갑'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 병원이 건설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둘 다 중추적 사람이 된다. 반면 '을'은 자신이 없더라도 여전히 공공 도서관이 공급되며, 공공재의 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중추적 사람이 아니다.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는 '비용 분담금'은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분담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4문단에서 공공재에 대한 지불 용의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크 조세 방식이 제안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4문단에서 클라크 조세 방식은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 속일 필요가 없도록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4문단에서 클라크 조세는 공공재와 관련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4문단에서 클라크 조세 방식은 '비용 분담금'에다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총 지불해야 할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 ④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 ②는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를, ③은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를, ④는 '위로 솟거나 부풀어 오르다.'를, ⑤는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소설]

[26~28] <출전> 염상섭, 「탐내는 하꼬방」

2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조고만 체통에 ~ 올빼미 눈 같다.’에서 박일성의 외양을 묘사하여 그의 부정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진숙 어머니가 ‘속으로 웃는’ 짓은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박일성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필준이택의 말에는 역시 가시가 품겨 있었다.’와 ‘당장 혈이 가라는 것은 아닌 모양이니 ~ 언성을 높여 사정을 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내무서원에게 발각되어 끌려갈 경우 필준의 안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필준을 찾기 위해 수색하는 ‘거센 목소리’는 인물의 삶이 위협받는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내무서원에게 끌려가면 필준이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장 여편네가 ‘다다미를 들어내’는 진숙 어머니를 돕는 모습에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부정적 인간상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필준이 끌려간 상황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진숙 어머니와 자신들에게 처해진 비극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가족 공동체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비극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인물의 의도 파악하기

‘한 오만 원이라면 내가 살까!’라고 하는 말에서 박일성이 필준이네의 하꼬방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은 필준이택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어차피 가시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박일성의 말에 대해 ‘가긴 어딜 가요?’라고 말하며 밝근하며 핏대를 돌리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필준이 다다미 밑에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이 틀리자 ‘김이 빠져 머쓱해’하면서도 ‘삼조 방으로 뚜벅뚜벅 건너가’며 수색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내무서원에게 발각되어 ‘기어 나오는’ 필준의 모습을 보며 ‘얼이 빠져’ 서 있는 진숙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필준이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29~31] <출전>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김현승,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29.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속삭이는 소리……’와 (나)의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에서 시행을 말줄임표로 끝맺어 여운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꽃달’이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에서 화자가 ‘꽃’이 떨어지는 것을 ‘삶의 유한함’이 아니라 ‘열매’로 이어지는 연속성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쇠창살’, ‘철책’, ‘창살 틈’에서 창살의 이미지는 시어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데, 이는 동물원의 동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한편, 화자로 하여금 자신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단절과 속박의 시적 의미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본다’는 화자의 시각적 체험을 통해 얻은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는 자신이 짐승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화자를 들여다본다고 인식하고 있어 짐승과 화자의 전도된 상황이 형상화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는 낙조라는 하강의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이러한 이미지는 환기력을 통해 통곡과도 같은 비통한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별들이 ‘질서있게 못을 박는다’는 별이라는 친숙한 대상을 ‘못을 박는다’로 낯설게 드러낸 점에서 신선감을 통해 밤이라는 시간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이해하기

㉠에서 이미지란 작가가 독자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므로 독자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떠올리고 해석하며 작품을 감상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린것들의 숨소리’가 ‘파묻히고’는 <보기>를 통해 볼 때, 시간 ‘밤’이 작고 어린것들을 감싸 안고 이들을 키워 성장시킨다는 시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보기>에서 ‘밤’은 감성을 자극하여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이라고 했으므로, 독자가 ‘밤’에 대해 ‘시인의 감성이 위축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과실의 밀도’처럼 ‘달도록 고요하다’는 것에는 ‘달’은 과실의 이미지와 고요한 시간 ‘밤’의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보기>에서 작가는 의도적으로 두 이미지를 중첩시켰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해체나 분석’은 이성적 사유를, ‘상상’은 ‘감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보기>에 따르면 시간으로서의 ‘밤’은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되며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배경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것에는 ‘밤’이 ‘상상으로’ ‘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이미지가 드러나고, <보기>에서 시간 ‘밤’은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킨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하여 시간을 ‘새벽’으로 향해 가게 하는 것은 ‘밤’의 풍성하고도 능동적인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보기>에 따르면 이는 시간 ‘밤’이 지닌 ‘성장’이라는 시적 의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과학]

[32~36] <출전> 강신성 외 옮김, 「인체생리학」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7문단의 ‘늑간근의 움직임으로 인해’라는 부분을 통해 흡기와 호기에서 근육이 움직이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근육들의 내부 구조는 어떠한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 이 과정을 호흡이라 한다.’라는 부분과 2, 3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의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작거나 클 때 공기는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의 ‘흡기와 호기 동안 폐의 부피는 변화하고, 이 변화는 보일의 법칙에 따라 폐포압을 변화시켜 폐 안쪽으로 공기 흐름을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의 ‘흉곽은 ~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횡격막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흉막강은 ~ 흉막 내액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부분과 ‘이때 안쪽 흉막은 폐에 붙어 있고’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폐는, [그림]에서처럼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로’라는 부분과 ‘얇은 세포층인 두 개의 흉막으로’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의 ‘코와 입을 통해 ~ 폐포로 들어간다.’라는 부분과 ‘폐포는 ~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의 ‘기관과 기관지를 거친 공기는 ~ 상태가 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이해하기

7문단의 내용을 통해 흡기에서는 흉곽의 확장, 흉막강 부피 증가, 흉막 내압 감소, 경폐압의 증가, 폐의 부피 증가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호기에서는 흉곽의 축소, 흉막강 부피 감소, 흉막 내압 증가, 경폐압 감소, 폐의 부피 감소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은 흡기가 끝나는 지점으로,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이며, 흉막 내압이 가장 낮은 지점임을 알 수 있다. ㉡은 호기의 중간 지점으로, 횡격막 이완과 근육 움직임에 의해 흉곽이 축소되고 흉막강의 부피가 줄어들고 있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보다 흉막강의 부피가 큰 지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폐포압이 0인 지점으로, 폐포압이 대기압과 동일하여 공기 흐름이 없는 지점이다. 또한 7문단의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 흉막 내압은 공기의 흐름이 없을 때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통해 ㉠보다 흉막 내압은 높고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흡기의 중간 지점으로, 폐의 부피가 늘어나고 있는 지점임을 알 수 있으며, 흡기에서 폐의 부피 증가는 흉곽의 확장과 관련 있으므로 ㉠은 흉곽이 계속 확장하고 있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흉막 내압은 흡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낮아지므로 ㉠의 흉막 내압은 ㉠에서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문단의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를 통해 ㉠이 ㉠보다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이 더 많은 지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호기의 중간 지점으로,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은 흉막 내압은 계속 높아지는 지점인 반면, ㉠은 흡기의 중간 지점이므로 흉막 내압이 계속 낮아지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에서보다 흉막 내압이 큰 지점이다. 그리고 흡기에서는 흉막강의 부피가 증가하지만, 호기에서는 흉막강의 부피가 감소하므로 ㉡은 ㉠에서보다 흉막강의 부피가 작은 지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호기의 중간 지점으로, 폐에서 체외로 공기가 이동하는 지점이며, 호기에서 흉막 내압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높아지므로 ㉡에서보다 흉막 내압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서부터 호기의 끝 지점인 ㉢까지는 폐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은 ㉡에서보다 폐의 부피가 더 큰 지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은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은 호기의 중간 지점이므로 ㉠에서 ㉡로 호흡이 진행될 때에는 호기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7문단의 ‘호기는 흡기와 순서는 동일한데, 횡격막의 변화

와 늑골의 이동 방향은 반대여서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면서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통해 횡격막은 이완되어 위로 움직이고, 늑골은 아래쪽과 안쪽으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보기> [사례]의 '흉막강에 지속적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라는 부분과 [학생의 반응]의 '쪼그라들었겠군'을 통해 흉막강 내에 공기가 차 폐가 쪼그라든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흉막 내압이 대기압과 같아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쪼그라든 폐를 다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흉막강 속 공기를 제거하여 '폐를 확장시키려는' 경폐압을 증가시키면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현대수필]

[37 ~ 41] <출전> 정훈, 「용추유영가」
장경세, 「강호연군가」
노천명, 「산나물」

37.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가)에서는 '겨울', '백설' 등 계절감을 나타낸 어휘를 사용하여 은거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차가운 서리 흰 이슬', '봄 그늘' 등의 시구가 나타나는데, 화자는 자신의 근심이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됨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도 '진달래도 아직 ~ 모두가 을씨년스럽다.'에서 '봄'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봄과 달리 마음이 춥고 쓸쓸한 글쓴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계절감을 나타낸 어휘를 사용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다)의 '뺨이 푸드덕 날면'의 '푸드덕'에서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지만, (가)와 (나)에는 의성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맑은 물 귀 씻으니 허유를 내 부러워하랴' 등에서, (나)의 '송옥이 그늘홀 만나 므스 이리 슬프던고'에서 고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사를 활용해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다)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순수함이 상실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가)에서는 고사를 통해 과거에 살던 사람들의 상황과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이 처한 곳의 만족감을 드러내려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다)에서 '봄'이 오는 자연 현상과 그 속에서 쓸쓸함을 느끼는 '나'의 정서를 대조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에서도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시구의 비교 이해

(가)의 '우활한 정신'과 (나)의 '장부의 몸'은 모두 자연 속에서 은거한 화자 자신을 가리키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내 부러워하랴'에서는 허유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화자의 만족감이, (나)의 '나 뿐인가 흐노라'에는 자연에 은거해 흥취를 즐기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뉘싯대 드리우니 칠리탄과 엇더호고'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곳을 칠리탄과 비교하며 '뉘싯대'를 드리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뉘싯대'는 자연의 풍류를 나타내는 소재임을 알 수 있으며, (나)의 화자는 '양춘곡'을 타며 곡조마다 '님 향흔 시름'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춘곡'은 화자의 시름이 묻어나는 소재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화자는 '공명'을 생각하지 않고, '빈천'을 서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나)의 화자는 '부귀'를 따

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이 계산 경물을 슬도록 거느리고/ 백 년 세월을 노닐다가 마치리라'에서 화자는 '계산 경물'을 실컷 거느리며 노닐고 싶다고 하고 있고 (나)의 '일산 풍월에 즐거움이 7이 업다'에서 화자는 '일산 풍월'에서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송옥'의 고사를 인용해 '송옥'의 슬픔과 자신의 슬픔을 비교하여 표현하였으나, '이 내의 남은 저 근심은 봄 그늘이 업서라'를 통해 화자가 늘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수에서 '님 향흔 시름'은 <보기>의 임금을 잊지 못하는 작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시절이 하 수상'해 '모음을 둘 디 업'는 상황에서 작가는 '의론'이 충분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의 '당쟁'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9수의 '공맹의 적통이 느려 주자께 다다르니'에서 공자와 맹자의 정통성이 주자에게 이르렀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세한 학문은 궁리 정심 나란히 일렀네'에서 공맹의 적통을 이어받은 주자의 학문을 칭송하고 있다. 이는 <보기>의 '성현의 학문을 칭송하는 태도'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득군행도'가 군자의 뜻이지만, '때를 못 만나며는 고반을 즐겨'한다는 것에서 자연에 은거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보기>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 권력에서 소외되어 가던 작가의 고뇌'와 관련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10여 년 전 같으면 ~ 내게도 꽤 때가 앉았다.'에서 '미운 사람'을 보고도 곧잘 웃고 혼연스럽게 대한 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예쁜이, 섭섭이, 확실히, 내째는 ~ 뺨이 못 달려 든다는 것이었다.'에서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우리는 이 산 저 산으로 ~ 또 대단한 것이다.'에서 '뺨꼭채', '싱아', '취뿌리' 등은 '나'의 유년 시절의 체험과 관련된 풍물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고향을 떠난 지 30년. ~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는다.'에서 '나'가 오늘 마주한 '산나물'은 작가에게 고향과 인정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심산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 산나물 같은 사람이 어디 없을까?'에서 지난날의 순수를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작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비교 이해

(가)의 '별천지'는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강호 자연으로, 화자는 여기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글쓴이는 '서울로 올라오던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내 쫓긴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유년 시절의 순수함이 있던 '에덴 동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와 ㉡ 모두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42 ~ 45] <출전> 작자 미상, 「옥주호연」

42.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최완'이 '본진'으로 돌아와 거짓으로 행복한 이유를 말하고 '원양 북문'으로 나아가 한양과 싸우는 등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긴박함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서사 내용 파악하기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 최완의 창을 맞아 죽은지라'에서 한양은 최완의 진을 파악하지 못하고 북군으로 착각하여 원양 북문을 열어 결국 북군이 패하게 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 용서치 아니 하리라.'에서 유생은 왕씨가 무예를 익히는 삼소저를 단속하지 않았다고 꾸짖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우리 팔자 무상하여 ~ 사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와 '어이없어 다만 탄식뿐이러니'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방금 천하 크게 ~ 세월을 허비하리이꼬'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양진이 상대하매 ~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에서 원건은 장임에게 간인을 울리지만 장임은 명주와 최완에게 주옥으로 정성껏 대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 감상하기

'옛날에 당 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 이름이 지금 유전하오니'에서 무예를 배워 천하에 이름을 널리 알린 장원공주의 업적이 드러나므로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를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소녀 등도 이 일을 본받아 ~ 부모께 현양코자 하옵고'에서 무예를 익혀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삼소저의 욕망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여자의 도는 ~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이꼬'에서 삼소저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 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활을 한 번 당기어 ~ 말에서 떨어지매'에서 여성 주인공인 벽주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차설, 육인이 원양성 ~ 할 일 없어 행복하는지라.'에서 여성 영웅인 삼소저가 남성 영웅인 최완, 최진, 최경과 동등한 위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에서는 명주가 최완에게 원양성 함락을 위해 협력을 제안하고 있고, ㉡에서는 명주와 최완 두 사람이 장임을 전략적으로 속이기 위해 장임에게 겉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대화 상대방과 진실로 협력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진술을 적절하다.